



<b>작성부서</b>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 전자금융과, 금융감독원 IT·금융정보보호단			
<b>책 임 자</b>	김동환 과장(02-2156-9490) 김유미 선임국장(02-3145-7180)	<b>담 당 자</b>	서병윤 사무관(02-2156-9494) 윤덕기 사무관(02-2156-9491) 구원호 팀장(02-3145-7425)	
<b>배 포 일</b>	15.12.8(화)	<b>배포부서</b>	대변인실(2156-9543~48)	총 5매

**제 목 : 금융개혁 1년, 핀테크 혁신으로 금융의 새 바람이 불니다.**  
- 임종룡 금융위원장, 금융개혁 현장점검 회의 개최 -

## 1 회의 개요

-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금일(12.8) KEB하나은행에서 핀테크 기업, 금융협회 및 유관기관, 연구원, 관계부처 등 핀테크 산업의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금융개혁 현장점검 회의를** 개최

◇ ‘핀테크 1년, 금융개혁 현장점검 회의’ 개요

- (일시·장소) 2015.12.8(화) 14:00~16:00, 하나은행 본점
- (참석) 핀테크 기업, 정부 부처, 업권별 협회, 유관 기관 등 총 35개 기관

구 분	구 성
정부·감독기관	금융위원회, 미래부, 중기청, 금감원 IT·금융정보보호단
금융협회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전문금융협회, 신용정보협회
유관기관	핀테크 지원센터, 산업은행, 기업은행, 코스콤, 예탁원, 거래소, 금융결제원, 금융보안원
연구기관	금융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보험연구원
핀테크 기업	비바리퍼블리카, 인터페이스 (주)핀테크,페이게이트, 위닝아이, 오픈트레이드, 웹케시, 뉴지스탁, KCP
기타	벤처캐피탈협회, 성장사다리펀드, Accenture,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D.camp

- 오늘 회의는 지난 1년간 추진해온 **금융개혁과 핀테크 육성의 성과를 현장에서 점검**하고 시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한 것으로
  - 금융위의 핀테크 육성 성과 발표에 이어 정책 성과와 향후 과제 등에 대한 **참석자들의 평가와 다양한 의견개진**이 있었음
  - 한편 회의 시작에 앞서,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KEB하나은행이 핀테크 육성 프로그램으로 운영중인 **1Q Lab**을 방문하여 입주 핀테크 기업을 격려했음

## 2 금융개혁과 핀테크 육성 주요 성과 (금융위원장 모두 말씀)

- **임종룡** 위원장은 **금융개혁**이란 **경쟁과 혁신**을 통해 기존 금융산업의 판을 흔들어 **금융이용자의 편의**과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라고 강조
- 그간 금융의 전 분야에 걸쳐 다양한 개혁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 결과, **금융개혁의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국민들이 서서히 체감하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평가
- ① **(은행산업)** 23년 만의 은행인가인 인터넷 전문은행 예비인가 등을 통해 은행산업에 **본격적인 경쟁 체제**를 도입
- ② **(자본시장)** 11년만의 거래소 개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도입, 클라우드 펀딩으로 **모험자본 육성**과 **투자 중심의 금융환경**을 조성
- ③ **(보험산업)** 보험가격 자유화 방안 마련, ‘보험다모아’(온라인 보험 슈퍼마켓) 출범 등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보험시장**을 구축
- 또한, 새로운 플레이어와 서비스로 상징되는 **핀테크야말로 금융개혁의 본질**을 가장 잘 보여주는 분야라고 언급하며, 지난 1년간 모두의 노력으로 **본격적인 핀테크 시대**가 열리고 있음을 강조

❶ (다양한 서비스 출시) 클라우드 펀딩, 간편결제, 간편송금, 실물카드 없는 모바일 카드, 비대면 실명확인 등 다양한 서비스 이용 가능

- 특히, 인터넷 전문은행은 지급결제, 송금, 자산관리 등 모든 금융거래 영역에서 핀테크를 한 단계 도약시킬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

❷ (핀테크 산업의 성장) 핀테크 기업과 금융회사간 제휴 활성화(22개 핀테크 기업), 핀테크 관련 산업종사자 수 증가\* 등

\* '14년 약 2.43만명 → '15년 약 2.56만명 (금융보안원 추정, '15.12)

❸ (핀테크 만족도)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조사대상 국민의 약 66.3%가 '핀테크'를 인지, 이용자 중 약 74.2%가 서비스에 만족한다고 답변하고,

\* 일반국민(1,000명), 핀테크 이해관계자(106명) 대상 설문조사(한국리서치, 11.2~13일)

- 이해관계자들의 65.1%가 정부의 핀테크 육성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등 핀테크에 대한 인식과 만족도가 상당한 수준에 도달

☞ 핀테크 육성 성과에 대한 상세 내용은 [붙임 1] 참조

□ 임종룡 위원장은 인터넷 전문은행 등 새로운 핀테크 서비스를 통해 국민들의 편익을 향상시키고 경쟁과 혁신을 통해 금융빅뱅을 촉발하는 것이야말로 금융개혁의 핵심적 과제라고 강조하며,

- 핀테크 육성을 위한 핀테크 기업, 금융회사 등 주요 이해관계자와 관계 부처 및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노력과 협조를 당부

### 3 금융개혁 현장의 평가와 건의사항 청취

□ 금일 회의에서는 핀테크 산업과 관련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지난 1년간 핀테크 육성 정책 성과에 대한 평가와 의견개진이 있었음

- 핀테크 기업들은 지난 1월 금융위의 핀테크 육성방침을 들었을 때는 반신반의하는 마음이 있었으나, 해묵은 규제들이 빠르게 개선되어가는 과정을 보며, 금융개혁을 실감할 수 있었다고 발언

- 금융권은 최근 출시한 핀테크 서비스가 고객들의 큰 호응을 얻는 것을 보며 핀테크가 경쟁과 혁신을 통해 기존의 금융권에게도 새로운 자극과 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졌다고 언급

□ 금융개혁을 통해 낡은 규제들이 개선되고 핀테크 기업과 금융회사간 협력이 활발해지면서 나타난 핀테크 기업들의 성장 사례도 소개

- '14년말 휴대전화번호만 알면 송금이 가능한 서비스를 개발한 한 업체는 금융위의 적극적 유권해석과 핀테크 기업에 대한 출자 활성화 방안 발표 등에 힘입어 최근 13개 금융회사와 제휴를 맺고 총 50억원의 직접 투자를 받는 등 사업 확대를 준비 중

- '스마트 OTP'를 개발한 또다른 업체는 금융위의 '매체분리 원칙' 폐지와 핀테크 데모데이를 통한 1:1 멘토링 연계 등에 힘입어 시중 은행 및 카드사와 협약을 맺고 서비스 상용화에 성공

□ 한편 손보험회는 최근 '보험다모아'(온라인 보험 슈퍼마켓)의 등장에 따라 인터넷·모바일 전용보험 출시가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하며,

- 보험 가입 및 보험료 자동이체 출금동의 등에 있어 서면상 동의나 공인전자서명만을 인정하는 규제를 완화해 줄 것을 요청

⇒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최근 은행 계좌 개설시 다양한 비대면 실명 확인 방식을 도입한 것과 같이 향후 관련 규제개선을 통해 핀테크 시대에 맞는 다양한 인증방식을 도입하겠다고 답변 (※ [붙임 2] 1p. 참조)

□ 은행연합회는 핀테크 기업의 서비스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구축 중인 '금융권 공동 핀테크 오픈플랫폼\*' 과 관련하여,

\*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이 서비스 개발 과정에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통로장(場)

- ① 금융회사 내부의 금융 서비스를 표준화된 형태로 제공하는 Open API와
- ② 개발된 서비스가 금융전산망에서 작동하는지 시험해 볼 수 있는 인프라인 Test-bed를 더한 개념 (※ 7.15 발표, 12월 Test-bed, '16上 Open API 구축 추진)

- 은행이 보유 중인 **고객의 거래정보**를 핀테크 서비스를 통해 해당 고객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도 매번 금융실명법에 규정된 서면상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를 질의

\* 고객이 '가계부 앱'을 통해 본인의 계좌를 조회하는 경우에도 1차적으로는 은행이 핀테크기업에 정보를 제공하게 되므로 매번 서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문제

⇒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법의 취지를 감안할 때, 건별 동의가 아닌 포괄적 동의\*가 가능하며, 서면상의 동의는 전자서명을 포함한다는 내용의 유권해석을 제공하겠다고 답변

\* 최대 유효기간 5년, 명의인의 자기정보결정권 보장을 위해 재동의 여부를 1년마다 서면, 이메일 등으로 확인

- 이에 따라 핀테크 기업들도 **온라인으로 고객 동의를 얻어 다양한 핀테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길이 열림 (※ [붙임 2] 2p. 참조)

\* 핀테크 기업이 은행의 잔액조회 API를 제공받아 잔액조회 기능이 포함된 가계부 앱을 만들어 출시하는 경우 최초 전자서명 동의만으로 지속적인 서비스 가능

□ 이와 관련, 참석자들은 핀테크 기업과 금융권이 협력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함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이 불확실한 규제**인데,

- 금융당국이 그 동안 모호하던 부분에 대해 **적극적인 해석을 제공**하고 **규제개선을 약속**하는 모습에서 **금융개혁을 실감**한다고 언급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c.go.kr>



넓게 들겠습니다  
바르게 알려겠습니다